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증 표기방법 개선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 번호로 가능하도록 하여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육아휴직자 보험료 부담 덜어드립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감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한다고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약 54,000명의 육아휴직자에 대해 연간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추가 경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의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12월 보험료분 이후에 대해서 별도 조치 없이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10대의 허리가 휨다' 척추측만증 주의해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척추측만증(M41)'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10만3천명에서 2010년 11만6천명으로 5년간 약 1만3천명이 증가(12.2%)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나타났다. 또한, 총진료비는 2006년 109억원에서 2010년 154억원으로 5년간 약 45억원이 증가(40.3%)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확인되었다.

척추측만증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10대의 점유율이 4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띠지 않고 굽거나 휘는 기형상태로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흉추가 뒤로 나오고 경추와 요추가 앞으로 들어가는 이중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척추측만증은 골성장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작될수록 성장하는 기간이 많이 남아서 만곡도 더 많이 진행한다.

무거운 가방이나 몸에 맞지 않는 책상과 의자 등이 척추측만증을 유발 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척추측만증은 특발성 척추측만증(85%)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아울러, 척추측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까지 없으며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리스테리아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미국(CDC)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18개주에서 리스테리아균에 의해 총 72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13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됨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발생 원인은 미국 연방 보건 및 규제기관에 의한 합동조사 결과, 콜로라도 그라나다 젠슨 농장에서 재배된 캔달롭(멜론)으로 밝혀졌다.

이 질병(리스테리아증)은 2011년 7월 31일 이후에 시작되었고 감염자 연령층은 35~96세로 평균연령이 78세로서 감염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며, 감염자의 58%는 여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일선 검역소를 통해서 미국 리스테리아균 발생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감염 주의를 촉구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및 귀국 후 발열, 근육통의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검역소 또는 인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외 여행시에는 사전에 해외 질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반드시 방문하여 정보를 숙지하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